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NE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2

## 여성회원들 행복한 수다의 시간



2022년 5월 26일(목요일)은 참 좋은 날  
 Ross Dock Picnic Area가 통째로 바껴준 날  
 골든클럽 여성회원들이 세 번째 만난 날  
 여성회원 12명, 남성회원 5명이 모인 날  
 참석회원 한분 한분 자기 소개한 날  
 강혜미 고애자 낭중현 박혜미 배경희 이인신  
 송진희 송혜순 조승자 홍선경 홍예경 허유선,  
 홍종만 김정필 박기환 한용오 조달훈이 모인 날

김영철 동창회장이 찬조금 준 고마운 날  
 허유선이 그걸로 모자 가져 온 날  
 모두 하나씩 골라 쓰고 뽕내며 활짝 웃은 날  
 한용오/배경희 부부 멀리 펜실베니아 아틀리에서  
 참석할 반가운 날  
 부들부들 찬조금 내겠다고 줄라대신 날

송혜순이 가져온 달콤한 케익을 감미롭게 먹은 날  
 김방 달튀김 강다떡 부추전 썩떡 경단 배불리 먹은 날  
 홍예경 낭중현 언제나 전부 차린 날  
 홍선경이 가져온 썩떡 먹으며 썩떡썩떡한 날  
 장기자랑도 없이 즐기며 이바구하며  
 수다만 떠어도 지루하지 않은 날  
 자주 만나서 가까워지며 정이 드는 날  
 허드슨강아! 골든클럽 아가씨들 나가시다.  
 씩씩하고 활기차게 강변을 걷은 날  
 날씨도 환량하게 우리를 바껴준 날  
 또 만나자고 약속한 날  
 항박 웃음 나리며 헤어질 날  
 모두에게 마음 깊이 감사한 날

■ 고애자(사대58)

## 골든클럽 6월 골프대회 안내



4월은 Sunset Valley에서 5월은 동창회 골프로 Wallkill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6월은 뉴욕 플러싱과 LI에 사시는 회원들을 고려하여 Bronx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Guest도 환영합니다. Shotgun의 구성 최소 인원은 40명임을 감안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6월 9일 목요일 12시 30분 shotgun  
11시 30분까지 도착바랍니다.

장소: Split Rock Golf Courses

주소: 870 Shore Rd, Bronx, NY 10464

회비: \$120

저녁과 시상식은 Club house에서 골프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 골든클럽 야외 피크닉 안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래와 같이 피크닉을 가집니다. BBQ와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함께 할 다양한 게임 그리고 생활에 요긴한 경품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함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날짜: 6월 16일 목요일 11시 - 3시

장소: Rockland Lake State Park parking lot #2

주소: 299 Rockland Lake Rd, Valley Cottage, NY 10989

Parking fee: free

회비: 무료

##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shopping

골든클럽에서는 아래와 같이 3차 Zoom Seminar를 개최합니다. 지난 2번 (경제세미나 / 천문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실제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사: 손대홍 회원

시간: 6월 23일 (목) 저녁 8시

방법: Zoom (www.zoom.us)

meeting ID: 85810079334

passcode: 254590

또는 안내 이메일에 포함되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오미자 특선 선물 구입 안내

지난 3월 26일 신년교례회 특선선물로 건강음료 오미자청(A set)을 드렸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준비하였으니, 더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고, A set에 포함된 보은 Vogue Bottle 없이 오미자청만 추가로 필요하면 B set를 드릴 수 있는데 실비가격은 A set \$80, B set \$3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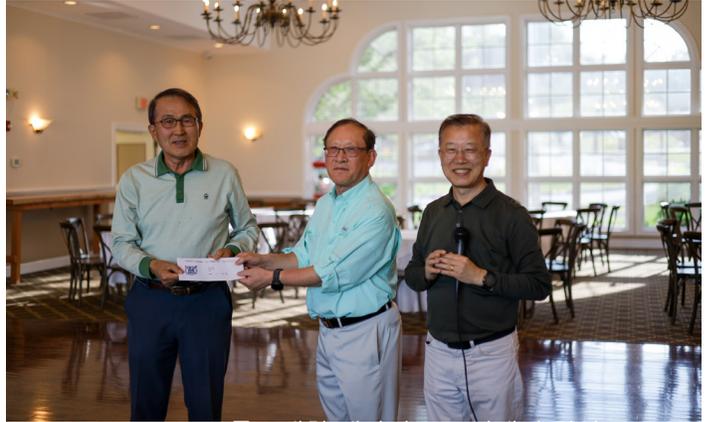
신년교례회 때 부득이 참석못한 회원들께는 대면 행사 때 전해 드리겠습니다.



## 회원동정



조다리가 보이는 파크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시간



뉴욕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메달리스트 이대영 회원



뉴욕동창회가 선물한 мил짚 모자를 나누면서



골프대회에 참가한 여성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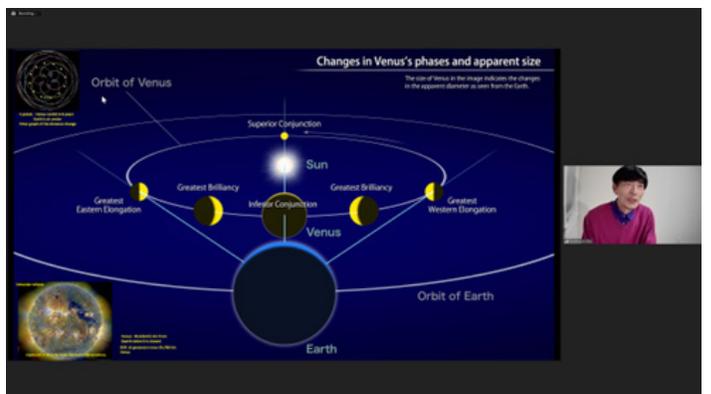
피크닉을 주관한 고애자 회원의 인사말씀



클로스핀과 2등상으로 함께 수상한 송웅길 송현자 회원 부부



산책중 조다리를 배경으로 스마일 ^^!



4월 14일 조달훈 회원의 천문의 기초 Zoom강좌

## 뉴욕동창회 80학번 모임



###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에서는 5월 18일 Middletown, NY에 위치한 Wallkill Golf Club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식물의 푸르름이 조금씩 대지를 덮는 절기, 소만(小滿)을 앞둔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즐겁게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모두 39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많은 동문들의 협조로 \$23,600 (약정금 포함)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준행 명예회장이 \$5,000, 조상근 장학위원장이 \$10,000을 쾌척하였다. 이 기금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후배들이나 동문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으로 쓰이게 된다.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캘러웨이 방식으로 진행된 골프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이대영 (88)
챔피언	남종현 (net 73)
1등	이종대 (74)
2등	송현자 이용대
3등	손경택 경선숙 황선욱
클로스핀	홍예경 송웅길 홍종만 황성원
장타상	김광현
단과대학	상대
감투상	한용희

뉴욕에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으로 서울대 총동창회에 참석이 다소 저조한 그룹으로 생각되는 80년대 학번의 동문들이 5월 21일 가연에서 모임을 가졌다. 뉴욕지역 총동창회 이번 임원진 출범후 작년 11월 17일 모임에 이어서 2번째 가진 모임인데 더욱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였다. 뉴욕 총동창회와 골든클럽의 후원금에 힘입어 참석자들의 부담이 없었으며 다들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고 반갑게 서로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80년대 학번 동문을 대상으로 별도의 카톡방을 운영 중인데 이번 같이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긴 동문들이 상당수 있기에 향후 모임이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금영천 회장, 조상근 장학위원장, 김정필 수석 부회장이 잔조 출연하여 향후 총동창회 및 골든클럽의 행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를 독려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2차까지 가서 못다한 이야기 꽃을 피우며 향후 꾸준한 모임을 가질 것과 동창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는 총동창회 임원진 선배님들을 제외하고 총 15명이었다.



위 왼쪽부터 이창길 (85 수학), 윤의규 (82 경영), 박계순 (82 영문), 채미영 (84 노문), 김기택 (81 수의), 강병승 (86 동물자원), 고은영 (81 계통), 이재연 (82 경영), 황성원 (86 경영), 양군식 (82 성악), 김병순 (82, 경제)  
아래 왼쪽부터 허유선 (83 식영), 한윤미 (84 영어교육), 김정필 (71 공대), 금영천 (72 약학), 조상근 (69 법과) 황윤 (81 제약), 김현승 (86 서어서문): 사진에 없는 참석자

### 뉴욕동창회 다음 행사 안내

연례 피크닉 및 정기이사회

일시: 8월 20일 11시-3시

장소: Rockland Lake State Park

뉴욕동창회 추계골프대회

일시: 10월 12일 (수) 11시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뉴욕동창회 송년회

일시: 12월 3일 (토)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80학번 모임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금영천 회장

## 5.16 - 61주년을 맞이하며

■ 김영덕(공대53)

지난 16일은 5.16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젊은 해군 중위로 진해 통제부 시설장 수송대 보좌관으로 있던 나에게는 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다.

1958년 나는 서울공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해군장교 특교대(미국의 Officers Cadet School에 해당)를 거쳐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진해 시설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959년 해군 시설장교를 위한 건설장비 운영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2차 대전 때 상륙작전을 위하여 Pontoon 교량 설치, 임시 비행장 건설 등 위험한 최전선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공헌을 한 유명한 US Navy Construction Battalion Headquarter가 있는 California Port Hueneme에서 교육을 받았다. 1960년 2월에 귀국하여 중위로 진해 통제부 산하에 있는 시설장 수송대의 보좌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진해 해군 수송대에서 근무 시작하지 2개월도 안 되는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집권당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반대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대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이 4.19 혁명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이때 나는 통제부 사령관실로부터 선거 투표함을 운반할 트럭 50대를 동원하라는 명령을 받아 준비를 시켰다. 선거 후에 안 일이지만 통제부 갑판사관(총무담당)이 운송트럭의 세세한 준비사항을 감독하였다고 보고 받았는데 차량등록번호가 같은 차를 2대씩 짝을 맞추어나 갔다고 했다. 선거함을 제작한 시설장 목공소에서 동일한 투표함을 두개씩 짝지어 제작했다는 보고를 후에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집권당이 투표함 바꿔 치기를 위하여 해군 뿐 아니라 전군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 5.16 군사혁명

그 후 1년도 안되어 1961년 5월16일 아침 7시 해군 통제부 사령관 명의로 각기관 기관장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수송대장이 휴가중이므로 보좌관인 내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곳에는 통제부 사령관을 위시하여 통제부 부사령관, 함대사령관, 시설장장, 작전참모, 정보참모, 조달청장, 공창장, 훈련소장 등 내가 평소에는 보기 힘든 각 기관장들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군사혁명위원장 박정희 소장명의 메시지와 계엄령 선포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해군은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말했다. 계엄령에 따라 해군 통제부가 진해지역 전체를 관할 통제해야 하므로 정보참모는 진해 시장실로, 작전참모는 자유당 당사 등 관련분야로 기관장들을 배치시켰다. 진해 철도역에는 수송대가 맡기로 하여 수송대장 대신으로 내가 나가기로 됐다. 주 임무는 아직 거취를 발표하지 않은 진해주둔 해병대 여단의 동태 파악이었다. 혹 혁명군과 싸우기 위하여 진해역에서 기차로 서울로 이동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5월16일 오전 통제부에 파견된 해군헌병(해군헌병은 전원 해병대 출신임) 2명을 데리고 진해역장실을 점령하고, 수송대의 사병 90명을 완전 무장하여 수송대에 대기시켰다. 나는 실탄을 장진한 45 Pistol을 지참하고 진해역장 옆



에 자리잡고 진해역 사항 특히 열차배치와 움직임을 자세히 추적하였다. 다행히 해병대 사령관의 혁명군 조기 합류로 진해 주둔 해병대여단의 염려는 곧 없어졌고 3일 후 4월18일에 계엄령이 해제되어 5월19일 수송대로 복귀하였다. 계엄령이 발효되어 있는 동안 나는 역장실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때 만약 진해 주둔 해병여단이 반혁명세력과 합류하기 위하여 기차로 이동을 시도했다면 나 하나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계엄령이 발효되고 있던 3일간은 내가 죽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새웠다. 5월 16일 오전 7시 회의 시작으로 매일 1주일간 계속되었다. 단 5월18일 계엄이 끝난 후에는 진해역 출근을 집에서 했다. 5월말에서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계엄령 당시 각 지역 단체에 파견됐던 기관장들은 박정희 혁명사령관 명의로 된 감사장을 받았다.

### 유학수속과 신원조회 문제

2년 후 해군에서 제대하고 캐나다의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대학원에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교부 시험에 합격하고 Fulbright 장학금 신청도 하고 준비할 일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내무부 조사국에서 하는 신원조회였다. 나는 해군장교로서 5년을 근무했고 원래 북한의 공산 체제가 싫어 전 가족이 1947년에 월남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준비는 다 했는데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 받았다. 내무부의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6.25 동란 때 인민군 부역을 한 기록 때문이라고 했다.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리 가족은 형님이 전라남도 순천시 철도국에서 근무하고 있어 순천에 살았으며 나는 크리스찬 학교인 매산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형님은 부산 철도국으로 호출되어 떠났고 전세가 어려워지며 인민군이 전라북도까지 진격했을 때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과 함께 부산을 향해 걸어서 피난길에 올랐다. 경상남도 하동에 도착하던 날 유엔군과 국군은 섬진강 하동교를 폭파하고 후퇴하고 있었다. 하동에는 그 날 벌써 인민군이 들어왔다고 들었다. 다른 피난민 몇 가족과 함께 섬진강 하류로 해서 강을 건너 다음 날 곤양 서포리에 도착했을 때 인민군이 먼저 와 있었다. 주인집 허드렛일을 하는 조건으로 방 한 칸을 얻어 들어간 집이 마침 새로 조직된 인민위원장 집이었다. 그리하여 인민위원장 집을 대표하여 인민군 부역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이 이북 공산국가가 싫어 남한으로 온 것을 알면 즉시 처형될 것이 뻔함으로 우리 식구 신분증을 다 없애 버렸다. 다행히 고향이 강원도 장전이라 이북 사투리가 없어 안심할 수 있었다. 부역일은 주로 해안을 따라 상륙하는 군대를 막기위한 진지구축 작업

#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림

■ 여주영(명예회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이 명구를 대단히 좋아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림 그리기 일지도 모른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척박하고 힘겨운 이민생활 가운데 누구보다 바쁘고 쫓기는 기사 생활을 하면서 머무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였다. 그래서 감히 손을 대고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 그림이었다.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은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림에 손을 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순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세계로 몰입하면서 얻는 즐거움 때문에 어려움도 하나의 즐거움으로 받아들 이면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 는 미 대에 다니던 딸의 조언과 도움이 한 몫을 담당, 가능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발, 두 발 걸어가다 보니 어설피지만 작품이 한 점, 두 점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걸어온 세월 10여년, 그 사이에는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유능한 화가로부터 개인적 지도도 열심히 받았다. 그렇게 해서 쌓인 작품이 60여점. 어느 날 우연히 가까운 지인의 제의로 작품을 사람들과 함께 감상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개인전이였다.

글만 쓰던 내가 그림 전시회를 하게 되다니.. 그동안 몰입해서 그린 그림을 지인들 앞에 내놓는 건 그야말로 내게는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로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용기를 내었다. 뉴욕의 첫 전시회를 열자 고맙게도 그동안 알고 지내던 많은 지인

들이 찾아주었다. 가상한 나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실력 있는 전문 작가의 경우 오히려 쉽게 전시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겁 없이 저지르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1차 전시회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앵콜 전시회를 다리 건너 찾아보지 못한 지인들을 위해 뉴저지에서 개최했다. 역시나 글만 쓰던 나였는지라 놀라워하는 많은 지인들의 방문을 받았다. 언감생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시회는 다행히도 두 번 다 성황을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길고 긴 암울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었고, 또 이 자리를 통해 서로 만나 안부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림만 보는 것만 아니라 전시회를 통해 함께 만나 즐거움을 나누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전문 작가가 아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알 수가 없다. 어디로 될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 여건만 된다면 자주 만들고 싶다. 전시회를 위해 그동안 성원해 주신 골든 클럽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었다. 서포리에서도 자백한 좌익 동조자 집단인 보도연맹 소속 인원이 꽤 있었는데 후퇴 시 처형했다고 들었다. 그리니 인민군이 들어오자 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 공무원과 경찰 가족들을 신고하여 연일 인민재판을 열어 처형을 하였다. 9월 초 해군 함포사격과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이 시작될 무렵 어느 날 인민군은 후퇴하여 자취를 감추었고 피난 갔던 가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인민 위원장을 했던 집주인 이씨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다. 인민위원장 집을 대표하여 부역을 했다고 나도 경찰서에 잡혀 감금되었다. 모든 신분증을 다 없었으니 우리 가족은 이북에서 공산국가가 싫어 월남한 가족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헛 수고였다. 어머님이 걸어서 순천까지 가서 매산고등학교 학교 목사님을 찾아 모시고 4일만에 돌아오셨고 나는 풀려나왔다. 작은 구치소에 20여명이 있었는데 조사받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처형당했을 거라고 수근거리는 말을 들었다. 6.25 동안 초기 몇달 사이에 작은 마을 이 서포리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동족살상의 경험은 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

## 부역 문제에서 해방

아있다. 이야기가 길어 졌지만 그때 경찰서에서 작성한 내 부역기록이 내무부 조사국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무부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즉시 해군장교 정장을 하고 박정희 혁명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장을 지참하고 내무부 조사국장을 만났다. 감사장을 보이고 어떻게 내가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할 수 있느냐고 점잖게 물었다. 그는 무슨 착오가 생긴 모양이라고 하며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10여분 만에 신원조회 합격통지서를 가지고 나왔다.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유학의 길을 무사히 떠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뉴욕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직원으로부터 6.25 동안 때 있었던 부역에 대한 모든 기록은 1978년에 폐기됐다고 들었다. 그제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 기분이었다.

# 2022 EPL Season & Upcoming World Cup

■ 정도현(공대57)

I think the end of 2022 EPL (English Premier League) might be the most exciting finale in the history of the English Soccer. There are so many plots still hanging in the air with only 1 or 2 games remaining. Of course, the main plot is the EPL championship between Man. City and Liverpool. Man. City leads with 4 points with one game remaining while Liverpool with two games on hand that either team has chance to win or tie. In case with tie, tie breakers kick in.

There are also a few intriguing sub-plots to be played out. 4 top finishers of EPL automatically qualifies for the place in UCL (UEFA Champions League). Being in the UCL is a big deal financially as well as to the prestige of the team. Now, Man City & Liverpool are way ahead, and they are already in. Chelsea is a distant third, but in.

The last spot is still open and contested between Arsenal and Tottenham. Tottenham is up two points with only 1 game left and Arsenal also has 1 game left. Anything can happen. Son Heung Min plays for Tottenham. Presently he is one goal behind the leading goal scorer of EPL, M. Salah of Liverpool. I hope he surpasses Salah and becomes the EPL's "Golden Boots" winner. He is also in contention for the EPL's "Player of the Year". I am proud of him.

Another critical subplot is the battle of Relegation. In EPL, each year, 3 last place teams are relegated to the lower Division. It is a disaster beyond imagination. Two teams, Norwich & Watford, are already relegated. One more team is to be relegated and it looks like the last game will decide their fate.

In every aspect, Liverpool is as good as Man City or even better. For the first time in EPL era, Liverpool has a real chance to achieve "QUADRUPLE" (4 major trophies -- EPL,

FA Cup, UCL and Carabao Cup) in a same season. Liverpool already won Carabao Cup. They are in the final of UCL and FA Cup. Depending on how Man City does the final game, they have a good chance for the EPL title.

## WORLD CUP 2022 Final TMT @ Qatar

Thirty-two national teams are qualified for the Final Tournament (TMT) after the Regional Qualification Preliminaries. Korea and Japan made to the Final TMT. But they are not expected to advance to sixteen team "Knock-Out" Phase. Iran is considered the strongest team from Asia

and they have good chance to advance to next stage. Most of the teams from Africa, Middle East and Central and North Americas are considered "Also-Ran". Again, it is a battle ground for the teams from Europe and South America.

First, it is shame that 4-time World Cup Winner and & reigning Euro Champ, Italy, did not make into the Final TMT. In the meantime, Spain completely reassembled team roster with young talents and they are considered a dark horse.

My sentimental choice is Belgium. Their golden generation that includes many awesome talents are getting old and time is running out. Two aging super stars, Messi & Ronaldo, are still playing but it looks like they must accept no World Cup Trophies in their glorious career. Again, I expect England will reach as far as Semi-Final.

Two clear favorites are reigning Champs, France and 5-time winner Brazil. Both teams are loaded with the world's Best Players. TMT starts late November 2022 at Qatar. "Stay Tuned!"



회원 명단 (114명 / 2022-5-24)

강교숙	김병순	최숙희	오유섭	이준행	최병우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강영선	김승호	배상규	유규환	이행순	최순채
계동휘	김영덕	성기로	유무영	이흥빈	최진영
고애자	김영만	손갑수	윤선구	임도혁	최철용
곽상준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임창우	최학주
곽선섭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추재욱
곽승용	김인형	남종현	이강홍	정도현	한영수
구달희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정수일	한용오
권정덕/	김종울	송근수	이상무	조달훈/	한태진/
홍선경	김창수	송웅길/	이 준	조승자	안용희
권영대	김치갑	송현자	이대연	정해민	허용웅
권태전	김태일	송학린	이대영	조상근	허유선
금영천	김한중	송혜순	이범선	주상선	홍사만
김광수	김현중	신진식	이수호	주재양	홍정표
김광현	노용면	신용남	이용대	진봉일	홍지복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전구	천병수/	홍종만/
김문경	박기환	오순문	이종대	천종화	홍예경
김문연	박준구/	오용호	이종석	최구진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5-24)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Atrium of Tenafly (81명 참가)
4월	14일(목)	Hiking - Lake Skannatati -취소
	21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8명 참가)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kkill (39명 참가)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18명 참가)
6월	9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16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23일(목)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7월	14일(목)	Golf Outing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8월	11일(목)	Golf Outing
	20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9월	15일(목)	Golf Outing
	18-30일	한국방문여행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20일(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75명 / \$7500/ 2022-5-24)

강교숙	김문경	박기환	송현자	이대연	진봉일	한영수
강에드	김병순	박희병	송학린	이민제	정도현	한용오
강영선	김상만	배상규	신응남	이용대	정해민	한태진
고애자	김우영	성기로	신진식	이전구	주재양	안용희
권정덕	김종울	손갑수	오순문	이종대	천병수	홍선경
계동휘	김창수	손대홍	오용호	이종석	천종화	홍종만
곽선섭	김태일	남종현	오유섭	이행순	최병우	홍예경
금영천	김치갑	손경택	오인석	임창우	최순채	홍정표
김광수	김정필	손옥화	윤선구	임호순	최진영	홍지복
김광현	김한중	송근수	윤현남	조달훈	최철용	
김동건	민준기	송웅길	이강홍	조승자	최철용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27명 / \$13,600 / 2022-5-24)

강에드 300	김한중 300	오용호 3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곽선섭 100	송학린 1000	오유섭 1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권정덕 200	성기로 300	이강홍 200	정해민 500	
금영천 300	손경택 1000	이전구 1000	천병수 300	
김승호 1000	신응남 500	이종대 200	최철용 300	
김종울 200	신진식 300	이준행 2000	한용오 200	
동창회 10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 2022-5-24)

김치갑	송혜순	이민제	임창우	허유선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2-5-26)

이준행 20,000

6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문경 (약대61) 최병우 (공대67)
- 김우영 (상대60)
- 손갑수 (약대59)
- 송현자 (가족)
- 신응남 (농대70)
- 이민제 (공대7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Google Chrome 활용요령; 매주 화요일 10-12시  
 Google Meet로 진행  
 문의, 홍종만 646-3426-2667  
 MS PowerPoint, 영상제작; 매주 토요일 10-12시  
 Zoom 화상강의로 진행  
 문의, 우규환 201-566-3665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